

# 산지 밀원조성에 의한 임업과 양봉업의 동시 발전방안 모색

대구대학교 자연자원대학 산림자원학과 류 장 발 교수  
(한국 아까시나무연구회 부회장)

지난호에 이어서▶

## III. 밀원식물의 번식방법

선정된 17종 밀원식물의 번식방법은 모두 비교적 쉬운 것들이다. 꽃이 많아야 꿀과 화분도 많으며, 따라서 종자도 많아진다. 위의 밀원식물들은 모두 파종으로 번식이 가능하지만, 밀원림 조성을 조속히 마치기 위해서는 묘목을 구입하거나 분근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종자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은 구입하고, 자연생 묘목을 굴취 이식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구입도 굴취도 할 수 없는 것은 종자를 채취하여 파종하면 될 것이다.

조림용 혹은 정원수로 이용되는 오리나무, 생강나무, 산수유, 회양목, 모감주나무, 쉬나무 등은 묘목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며, 교내 임지에 산재되어 있는 족제비싸리, 짚레나무, 클로버, 산초나무, 붉나무 등은 굴취 이식하는 것이 빠르고 쉬울 것이며, 좀목형, 코스모스, 해바라기와 웅긋나물 종자는 구입이 가능할 것이다. 밀원식물의 파종이나 이식 등과 그 이후의 관리는 쉬운 편이다.

표 6. 선정된 17종 밀원식물의 번식방법

식물 이름	종자 혹은 묘목	확보방법	식물 이름	종자 혹은 묘목	확보방법
오리나무	묘목	구입 식재	모감주나무	묘목	구입 식재
생강나무	묘목	구입 식재	산초나무	묘목	이식
산수유	묘목	구입 식재	쉬나무	묘목	구입 식재
회양목	묘목	구입 식재	코스모스 (조시개화품종)	묘목	파종
매실나무	묘목	구입 식재	좀목형(바이텍스)	묘목	파종
아까시나무	묘목	뿌리 삽목	붉나무	묘목	이식
족제비싸리	묘목	이식	해바라기	묘목	파종
짚레나무	묘목	이식	웅긋나물	묘목	이식
클로버	묘목	이식			

표 5. 선정된 밀원식물 17종의 이용 부위와 양(조도행, 1973)

식물 이름(학명)	꿀	화분	식물 이름(학명)	꿀	화분
오리나무 ( <i>Alnus japonica</i> )	-	++	모감주나무( <i>Koelreuteria paniculata</i> )	+++	+
생강나무( <i>Lindera obtusiloba</i> )	-	++	산초나무( <i>Zanthoxylum schinifolium</i> )	+++	+
산수유( <i>Cornus officinalis</i> )	+	+	쉬나무( <i>Evodia danielii</i> )	+++	++
회양목( <i>Buxus microphylla</i> var. <i>koreana</i> )	+	+	코스모스( <i>Cosmos bipinnatus</i> )	+	++
매실나무( <i>Prunus mume</i> )	+	+	좀목형( <i>Vitex chinensis</i> )	+++	++
아까시나무( <i>Robinia pseudoacacia</i> )	+++	+	붉나무( <i>Rhus chinensis</i> )	+++	++
족제비싸리( <i>Amorpha fruticosa</i> )	+++	+++	해바라기( <i>Helianthus annuus</i> )	+++	+++
짚레나무( <i>Rosa multiflora</i> )	+++	+++	웅긋나물( <i>Aster fastigiatus</i> )	+++	+++
클로버( <i>Trifolium repens</i> )	+++	+			

+ : 소량, ++ : 보통, +++ : 대량

## V. 고찰

우리 나라의 2000년도 꿀 생산은 10,560톤 생산되었으나(1999년보다 20% 증산), 가격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하였다고 한다. 그 이유는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꿀을 포함한 건강식품의 수요가 증가되며, 단맛을 내기 위해서도 설탕보다 꿀을 선호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UR와 WTO 체재에서 꿀을 비롯한 봉산물 가격이 낮아 수입되고 있으므로 한국 양봉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서는 밀원식물 임분 조성 등 여러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 방

안들중에 밀원식물 개발, 조성은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안이다.

밀원식물을 심는다면 우리 나라 국토의 2/3를 차지하는 산지가 우선 대상이며, 산지의 70%를 차지하는 사유림에 조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사유림은 소유주가 2백만명이 넘어 영세한 규모의 산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장기간에 걸쳐 많은 비용이 드는 목재생산은 엄두를 내기 어려워 산을 거의 방치해두고 있다. 이런 산지에 밀원식물을 조성하여, 꿀 등 봉산물을 연중 생산한다면 산지의 효율적인 이용면에서나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나 큰 다행일 것이다.

따라서 본인의 직장인 대구대학교(경상북도 경산시와 영천시 금호읍 소재) 구내 연습림 50만평중에서 1만평정도를 밀원식물 조림지로 조성한다는 가정하에 17종의 밀원식물을 선정하여, 그 식물들의 특성, 번식방법들을 검토하여 보았다.

이곳에는 이미 아까시나무 등 몇종이 조성되어 있고, 다른 밀원도 소량이나마 조성되어 있다. 그외 이곳에는 본인이 수행중인 당근종자 수확용으로 약 6백평의 당근꽃이 6월 한달 피고 있으며, 역시 본인이 연구중인 코스모스도 500평 정도에서 해마다 피고 있다. 이 주변지역에는 아까시나무도 많고, 양봉인도 많아 실험적지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칠곡군에서는 해마다 벌꿀 축제를 열고 있고, 영천군에서는 550가구에서 약 만통의 벌을 기르고 있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방안이 실현되는 날을 기다려 본다.

## ● 경북 영천벌꿀 브랜드화 추진

(영천 농업기술센터)

경북 영천시는 도내 최대 생산력을 가진 영천벌꿀을 브랜드화해 본격적인 시장공략에 나서기로 했다.

영천시농업기술센터는 영천벌꿀 명품화 추진을 위해, 품질인증제 도입과 상표등록, 포장개선 홈페이지 개설등으로 영천지역에서 생산되는 벌꿀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영천지역은 아카시아 꽃 군락지에다 과수가 많아 전국최대의 밀원 지역으로 연간 11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등 도내 최대 양봉사육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영천지역의 양봉은 도내 최대 사육규모에도 불구하고, 고유 브랜드가 없는 데다 홍보 부족과 농가간 품질차가 심해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벌꿀보다 경쟁력이 떨어졌다.

이에 영천시농업기술센터는 영천벌꿀 명품화를 위해 50여명의 전업농가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에 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상표 도안과 디자인 개발, 전자 상거래를 위한 전산교육을 마무리하고 본 협회와 협의해 탄소동위원소 검사에 의한 품질인증을 추진중이다.

## ● 유밀봉독(주) 이전 안내

최대봉(본 협회 前부회장)씨의 유밀봉독(주)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에서 전남 화순군 남면 북교리139번지로 이전.

(전화 : 062-652-1686, 011-625-1686)

## 아까시나무 연구회 성금기탁

▶전라북도 지회 : 300,000원

\*아까시나무 연구회 발전을 위해 성금을 기탁 해주실 전라북도 지회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